

■ 주간 증시 포커스

3분기 실적 기대감 고조 2500선 안착 시도

외국인·기관, 업종대표 대형주 순매수 관심

상장 최장기간 추석연휴를 마치고 한국주식시장은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였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8월부터 복핵 리스크가 다시 고조되면서 2300~2400선에서 횡보하다가 두 달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일 북한관련 보도를 보면 지정학적리스크는 지속되고 있지만 추석연휴 동안 글로벌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연휴기간 중 발표된 9월 국내기업 수출증가율이 전년대비 35% 증가하고 IT업종을 제외한 기업도 25%증가한 것이 투자심리를 호전시켰다.

또한 지난 13일 삼성전자의 3분기 예상실적발표에서도 3분기 매출 62조원과 영업이익 14조 5000억원으로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사상최대실적을 기록하였다. 반도체 슈퍼호황속에서 갤럭시 S8 판매호조와 가전사업에서도 호실적을 기록하며 4분기 실적도 호전될것으로 예상되며 연간영업이익 54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IT와 화학 정유 등 기업실적호전이 지수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대체 상승국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수의 추세적 상승흐름속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의 수익만족도는 낮은 상황이다. 지수는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개인투자자의 계좌수익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전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보합권에서 조정을 보였지만 코스피지수 상승종목은 272종목에 그친 반면 519종목이 하락했고 코스닥시장도 상승종목 271개의 3배가 넘는 896종목이 하락했다.

지수는 상승하지만 하락종목이 상승종목의 두배가 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시장이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연초부터 나타난 외국인 순매수중심의 시장흐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추석연휴 이후 다시 순매수로 전환하며 상승폭을 확대시켰던 외국인 순매수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프로그램 비차익 바스켓 매매(지수영향력이 큰 20~30개 종목에 매매비중을 미리 결정하고 금액에 따라 비율대로 매매하는 형태)가 대부분 차지하였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바스켓 매매와 같이 패시브자금이 주도하는 장세에서는 업종대표종목이 시장주도주군으로 부상되기 때문에 업종대표 대형주의 상승세가 높아 중소형주의 격차가 확대된다.

국내기업의 4분기 실적도 대기업중심의 실적개선이 지속할것으로 예상되고 외국인과 기관 중심의 수급구조가 이어진다면 현장세와 같은 업종대표주 중심의 차별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1년간 코스닥과 중소형주의 상승을 제한했던 제약바이오주의 최근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지난 13일 한중 통화스와 프가 종료된지 3일만에 중국과 560억달러(3600억위안)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 재연장계약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화장품 면세점 여행업종 등 사드관련주의 반등하는 등 변화의 조짐은 나타나고 있어 추세적인 상승가능성에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주 코스피지수는 2500선 안착시도가 이어질것으로 예상되고 코스닥시장은 연휴 이후 시장을 주도했던 셀트리온 3인방(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과 사드영향에서 벗어나 모처럼 상승세를 보인 중국관련주를 중심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자 유가증권 대형주와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주도주의 결정은 연휴 이후 돌아온 외국인의 유가증권시장 순매수 강도와 코스닥시장에서 기관 순매도 규모가 결정할 것으로 보여 향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는 종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전남농협 양파·마늘 '노지채소 생산안정제' 시행

지역농가 소득 안전 보장

다음달 초까지 신청 접수

시장 평년가격 80% 보장

계약금 20~50% 무이자

농산물 가격은 그해 날씨와 재배기술 등에 따라 품질과 생산량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투명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해 빚을 지거나, 소비자의 경우 치솟는 채소값에 부담을 겪는 일도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흥목)는 농업인의 소득을 지키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역 양파·마늘 농가를 대상으로 '노지채소 생산안정제(채소가격 안정제)' 신청을 접수받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접수받는 노지채소 품목은 이제 막 파종이 끝난 양파와 마늘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말부터 11월 초순까지로, 해당 농지에 대한 계약은 11월 말부터 12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전국 생산 면적의 50% 상당을 차지하고 있

**1 참여 혜택**  
계약금 무이자 지원!  
· 계약제금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20~50% 범위 내에서 이자부담없이 계약금 지원

**2 참여 혜택**  
가격하락 시 소득 보장!  
· 시장가격 하락 시 가격차액보전으로 소득안정 최대 연도매출액의 80% 보장  
· 과잉생산 등 가격하락 예상 시 사전에 면적 조절 가능 (4차분양/매출액/계약면적의 2~2.5배 보장)

**3 참여 혜택**  
출하장려금 지원!  
· 가격급등 시 출하조절 참여 출하면 물량에 대해 운송비, 출하직접비 등 지원

는 전남의 양파는 물론, 올해는 전국 25% 생산 면적에 달하는 마늘도 안정제 신규 품목으로 선정되면서 지역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농협이 신청받고 있는 '노지채소 생산안정제'는 정부가 주요 채소에 대해 도입·운영 중인 농산물 생산안정제를 말한다. 수급안정 사업비를 운용해 참여한 농업인에게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정부(30%)와 지자체(30%), 농협(20%), 농업인(20%)이 안정사업비를 분담하는 대신, 사업비가 남을 경우에는 농업인에게 되돌려주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해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시장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해줘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해당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할 때 최근 5년간 도매시장 평년가격의 80%를 보장해주고 있다.

또 과잉생산 등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절하면서, 그에 따른 보상가격도 기존보다 약 2~2.5배 더 지원한다.

반대로, 가격이 급등할 때는 출하조절에 참여한 물량에 대해 운송비와 출하직접비도 지원된다.

여기에 계약제결시 계약금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50% 범위 내에서 이자의 부담 없이 계약금도 지원해준다는 게 장점이다.

실제 생산안정제의 효과는 지난 2015년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확인됐다. 당시 고령지배추 1만8000t을 생산안정제로 계약해 추진한 결과가 사업에 참여한 농가의 수취가격이 일반 농가보다 9.6% 증가한 것이다.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포기당 1440원, 참여농가는 138원을 보전받아 1578원의 가격을 확보할 수 있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생산안정제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줘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제도"라며 "예측할 수 없는 농산물 가격으로 매년 부담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농가와 지자체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노지채소 생산안정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가입문의는 가까운 농협 판매계 담당자나 농협경제지주 전남지역본부(061-289-7222)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aT 로컬푸드 청년 서포터즈 '로컬 프렌즈' 발대식

홍보 콘텐츠 직접 기획·제작

소비자 눈높이 맞는 홍보활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시장 여인홍)는 지난 14일 지역 안심 먹거리 로컬푸드를 홍보하기 위한 로컬푸드 청년 서포터즈 '로컬 프렌즈'(Local Friends) 발대식(사진)을 개최했다.

로컬푸드 청년 서포터즈는 로컬푸드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들을 홍보활동에 직접 참여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특히, 이번 활동은 제품 상품을 체험하거나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기존의 일반적인 '미션수행' 형식과 달리 서포터즈가 홍보 콘텐츠를 직접 기획·제작하는 자율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혜영 aT 유통이사는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로컬푸드가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청년들이 몸소 느끼고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오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페스티벌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도, 낚시어선 사고 예방 합동 지도점검

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는 낚시어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 달간 낚시어선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남 해역에서는 최근 5년간 낚시어선 166척에서 사고가 발생해 연평균 33건에 달했고, 승선 인원은 무려 2023명이었다. 자칫 수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뿐만 아 절한 사고들이었다. 사고 원인은 정비불량(69척)과 운항과실(48척)이 70%를 웃돌았다.

연도별로는 2012년 29척(243명)에서 2013년 18척(231명)으로 사고가 줄었다가 2014년 25척(430명), 2015년 58척(737명)으로 급증했다. 지

난해 36척(382명)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낚시어선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가을철 낚시어선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군, 해양경찰서, 선박안전기술공단, 낚시어업인 등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낚시어선 임출항이 많은 항포구에서 낚시어선 전체 830척 가운데 190척을 무작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최근 낚시어선의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구명부환·구명조끼 등 구명장비 비치 여부, 낚시 전문교육 이수 여부, 통신기기·소방설비의 작동 상태와 불법 증·개축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및 인명피해 예방에 관한 전반적 사항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양,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락희호텔 근처
- 6층 중 4층 전체, 210평
- 2012년 신축, 전망 좋음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시세/감정가 12억
- 매매 - 7억 8000만원
- 용자 3억 3000만원 포함

비금도, 팟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비금도 안에 있는 단독섬, 무인도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목포에서 50분 (쾌속선)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있음
- 장기투자 가치 최고
- 매 14억 (현금2억+부동산과 교환 가능)

나주, ㄷ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급매 - 5200만원 (조정가)

“급 매”

콘도 / 리조트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42억
- 온천지구 내 (주)바리오 화순'에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

주인직매 010-3605-5000